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고흥으로”...6만 군민 한목소리

郡,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국내 유일 발사장 ‘나로우주센터’ 위치
기업 지원·기술 검증 가능 현장성 확보

고흥군은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에 대한 군민과 지역 사회의 의지를 결집시키고 있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고흥문화회관에서 군민과 유관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중심 거점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지원 및 건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강원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국내 대표 우주항공분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26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결의대회 및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결의대회에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당위성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 군민의 염원을 담은 결의문 낭독, 손팸아트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고흥군은 행사에서 진흥원 유치의 핵심 당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선 대한민국 유일

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가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 기술 검증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주산업 거점 구축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새로운 활

력을 불어넣는 등 정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실현할 최적의 모델이다.

더불어 유치 즉시 가능 가능한 사무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고흥-봉래 간 국도 15호선의 4차선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 중인 교통인프라도 최적지에 힘을 실어주

고 있다.
2부 행사로 열린 정책포럼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방향과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등 고흥 우주발사체 특화지역의 발전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 전문가들은 고흥이 우주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점에 공감하며, 특별법 제정과 진흥원 유치 지역 발전을 넘어 국가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공영민 군수는 “고흥은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와 함께해 온 현장이자, 앞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이끌 최적의 거점”이라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한 사무공간까지 이미 확보해 입지 확정 시 즉각 진흥원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지역사회, 정치권과 행정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특별법 제정과 진흥원 고흥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 고흥을 발사와 산업, 연구와 정주 기능이 결합된 한국형 스타테이스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쌀 원료 소주 ‘네오40 블랙’ 정상 우뚝

시향가, 韓 주류대상서 대상 수상
농촌진흥청 협업·유명 셰프 참여
부드러운 풍미·깔끔한 맛 등 호평



▲최근 열린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에서 소주 부문 대상을 차지한 곡성군, 시향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시향가 프리미엄 소주 ‘네오40 블랙’.

곡성군의 지역 전통주가 전국 최고 권위의 주류 품평회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K-주류의 뛰어난 맛과 상품성을 완벽하게 입증했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회사법인 시향가의 프리미엄 소주 ‘네오40 블랙’이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2026 대한민국 주류대상’ 프리미엄 소주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네오40 블랙은 곡성에서 생산된 가루미(마로미) 쌀 100%를 원료로 빚어낸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다.

전통 생쌀 발효법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쌀 본연의 부드러운 풍미와 깔끔한 맛을 극대화한 것이 핵심 경쟁력이다.

시향가는 지난 2021년부터 가루미 쌀을 활용한 전통주 연구에 매진해 왔다.

특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긴밀

한 협업으로 품질을 고도화했으며, 유명 셰프 최강욱이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미식 관점에서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탄탄한 품질을 바탕으로 시장 반응도 뜨겁다. 앞서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 증류주 부문 최우수상 등을 휩쓴 데 이어, 카가오희 ‘신물하기’ 플랫폼에서 3개월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하며 폭넓은 소비자층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설립된 시향가는 곡성 지역 농가와의 계약 재배를 통해 원료를 공급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탄탄하게 다지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곡성 쌀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전통주 산업이 지역 농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韓후계농업경영인 담양연합회, 고흥사랑기부 상생 실천

고흥·함양군연합회 상호 기탁식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가 이웃 지자체인 고흥·함양군연합회와 고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하며 끈끈한 지역 상생을 실천했다. <사진>



했다. 담양군연합회는 663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력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서정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담양군연합회장은 “고흥·함양군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상호 기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남 농업이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도내 지자체들과 상호 기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고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역 상생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경제청, 美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쟁걸음’

‘2026 암참 이사진 취임식’ 참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전남도와 손잡고 미국계 글로벌 기업들을 향한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에 나섰다.



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서 양 기관은 잠재 투자기업 발굴에

주력했다. 광양경제청은 이차전지 소재 클러스터와 스마트 제조 기반, 우수한 항만·물류 인프라 등 광양만권이 보유한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전남도의 동북아에너지·해양허브 및 미래첨단산업 강점을 전면에 내세워 암참 주요 회원사들과 밀도 있는 맞춤형 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구충곤 광양경제청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첨단 제조 분야 외자유치를 이끌어내, 전남도와 광양만권에 대한 민국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해수청 “안개철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

내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위험물운송·모래운반선 대상

시’를 제정했으며, 이후 매년 사고 위험이 높은 봄부터 여름까지(4-7월) 일부 선박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26일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금오수도(금오도-대두라도-소두라도 인근 해역) 내에서 위험물을 실은 선박 등의 통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항 제한 대상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조선 ▲모든 액화가스 및 케미컬 운송선 ▲모래운반선이다.

금오수도 해역은 지형적 특성상 안개가 자주 끼고 물살이 세서 배들이 지나다닐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곳으로, 실제 1990년대 초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선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기름 유출이나 유해 액체물질 누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폭발 위험은 물론 인근 해양 생태계와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여수해수청은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92년 ‘금오수도 선박통항 제한’에 관한 고

시수신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통항 제한 조치는 그동안 선박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며 “선박 운영사와 관계자들이 안전을 위해 통항 제한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어르신 복지 소통’ 마을활동가 간담회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 실현



구례군은 2025년 1차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간담회를 열고 상호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지서 납부 지원 등 일상 속 불편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26일 구례군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마을활동가와 읍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활동성과 공유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

마을활동가들은 어르신들과의 교류 속에서 느끼는 책임과 보람을 전했다.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는 민선 8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23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11월부터 2기로 이어지며 한층 더 체계화된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한 활동가는 “작은 도움에도 깊은 신뢰와 정을 보내주시는 어르신들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의 의미를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읍면사무소와 협의해 경로당을 순회하며 복지서비스를 안내하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각종 행정서비스 신청·접수를 지원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하고 상호성 높은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 청년농 맞춤형 지원 박차

올해 스마트팜 등 관련 예산 확대

과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통해 총 501농가에 204.9ha의 농지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가 미래 농업에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영농 기반 마련 등 초기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선임대 후매도 사업, 비축 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맞춤형 농지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한국농어촌공사 장성지사에 따르면 최근 지사 대회의실에서 지역 대표 청년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영선 장성지사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영농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하고, 기존 농지 지원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성지사는 지난해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 /장성=김태태 기자